

“현직 대통령 첫 구금”...외신, ‘尹대통령 체포’ 긴급 타전

“결정적 순간 리더십 마비”...“위기로 한국 분열상 드러내” 포털 바이두 등선 ‘윤석열 체포’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외신들도 이날 이른 오전부터 영상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긴급 타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윤 대통령 영상 집행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실시간 영상 및 속보 등으로 자세히 전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및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보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 긴장 속 대치도 종료됐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이 체포 소식에 “지난달 공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 몇 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선 사례”라고 언급했다.

CNN은 지난 몇 주간 윤 대통령이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머물면서 조사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해 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당국이 윤



중국 중앙TV(CCTV)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179명의 사망

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나라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윤 대

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스킵했다. WP는 몹시 추운 이른 아침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자 속보로 타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도 체포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한국 현지시간 10시33분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속보를 전했다.

같은 시각 관영 신화통신도 “윤석열 체포”라는 5글자의 긴급 속보를 내보냈

다. 홍콩과 대만 등 다른 중화권 매체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탄핵안이 소추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수백 명의 조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사저에 진입해 체포를 시도한 지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소식부터 이미 바이두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바이두에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지 자진 출석을 하도록 허용할지 등을 다룬 제목이 각각 실시간 인기 1위와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체포 직후에는 ‘윤석열 체포’가 즉시 실시간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갱단 폭력에 끔찍해진 아이티...국내 실향민 104만명

국제이주기구 “1년만 3배 ↑” 주변국 추방 정책 혼란 가중

극도의 치안 불안에 노출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국내에 머무는 주민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14일(현지시간)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아이티 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104만명에 이른다”며 “이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말 31만5천명의 3배를 넘는 수치인데, 아이티에서 폭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국내 실향민으로 떠돌게 된 적은 없었다고 IOM은 보도 자료에서 설명했다.

국내 실향민은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통상적 거주지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국경을 벗어나지는 못한 이들을 뜻한다. 아이티 국내 실향민 중 83%는 지인·친구·가족 등지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과부하 상태라는 게 IOM의 판단이다. 나머지 실향민은 임시 거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포르토프랭스 수도권에 집중된 임시 수용 시설은 기존 73개에서 1년 새 108개로 증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우 혼잡한 데다 깨끗한 식수와 식량, 위생,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한다.



카리브해 최빈국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의 폭력으로 집을 떠나는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챙겨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과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티 내 무장 갱단은 포르토프랭스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보고 있다.

살인·약탈·성폭행·납치·방화 등 아이티 내 폭력이 일상화해 가는 가운데 케냐 주도의 다국적 경찰력이 현지 군과 함께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 중이

지만, 인력·장비 태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 등지에서 추방된 아이티 주민들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을 더하고 있다.

IOM은 “이처럼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국제사회는 무관심 대신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SNS 가짜 브랜드 피트에 속아 12억 송금

프랑스 50대 여성, 돈도 잃고 남편과 이혼까지

프랑스의 한 여성이 미국 유명 배우 브랜드 피트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12억원을 날렸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해외령 레위니옹에 사는 인터넷 디자이너 안(가명·53)은 인스타그램에 겨울 휴가 사진을 올렸다.

이후 브랜드 피트 어머니 이름인 제인 에타 피트의 가짜 계정에서 연락이 왔고, 이날에는 브랜드 피트라고 소개하는 프로필을 쓰는 계정으로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얘기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 ‘브랜드 피트’는 이후 정기적으로 안에게 사랑의 시를 적어 보냈다. “당신을 위해, 나의 사랑”과 같은 달콤한 메시지를 쏟아냈고 남편과는 달리 안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안은 그가 보내오는 브랜드 피트의 가짜 사진과 가짜 여권 사본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가짜 브랜드 피트와 사랑에 빠진 안은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세계적 인기 공화국 등지에서 추방된 아이티 주민들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을 더하고 있다.

IOM은 “이처럼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국제사회는 무관심 대신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받았다는 사실을 새 연인에게 알렸다. 이에 가짜 브랜드 피트는 각종 명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연인에게 돈을 요구했다. 안은 할리우드 배우가 튀르키예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이유가 없다”는 그의 말에 수개월에 걸쳐 88만 유로(약 12억원)를 송금했다.

안은 지난해 여름, ‘진짜’ 브랜드 피트와 현재 여자친구인 이네스 드 라몬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충격을 받은 안은 세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종종 우울증 전문 클리닉에 입원하기도 했다.

안은 현재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가짜 브랜드 피트에 속아 거액을 사기당한 이는 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스페인 수사 당국은 브랜드 피트를 사칭해 두 여성에 32만5천유로(약 4억8천만원)를 가로챈 일당 5명을 체포했다.

일당은 브랜드 피트의 온라인 팬 페이지를 통해 만난 여성과 정서적 관계를 구축한 뒤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